

대학생 창업활동과 지원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중업* · 허갑수**

〈목 차〉

- | | |
|---------------------------------|---------------------------------|
| I. 서론 | 3. 대학생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수요자
건의사항 |
| II. 대학생 창업지원제도 현황 | IV. 대학생 창업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1. 창업동아리 신규발굴 지원사업 | 1.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 및 지원제도
의 문제점 |
| 2. 우수창업 아이템개발 지원사업 | 2. 대학생 창업활동 증진을 위한 개선책 |
| 3. 동·하계 벤처창업스쿨 개설 | V. 결론 |
| 4.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 참고문헌 |
| 5. 기타제도 | Abstract |
| III.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실태 | |
| 1. 동아리 활동 및 운영현황 | |
| 2. 대학생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체감효과 | |

I. 서 론

21세기를 흔히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유효한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자신만의 지식과 정열,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하여 개개인이 기업가로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가는 벤처창업가가 새로운 경제 주도층으로 부상되면서 이른바 “벤처열

* 동부산대학 경영정보과 전임강사
**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한 전국 창업 동아리 회원간의 기술적·인적 교류 및 전국 창업동아리 회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교류를 위하여 전국 대학생 창업동아리연합회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1년 현재 전국 창업동아리 연합회 회원 학교는 215개 학교에 참여동아리는 419개, 소속회원 수는 11,908명에 이르고 있다.²⁾ 또한 중소기업청에서는 해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지원을 통해 미래 창업자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대학내에서 창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창업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아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요 대학생 대학생창업 동아리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동아리 신규발굴 지원사업

이 제도는 각 대학의 활동이 우수한 창업동아리를 신규발굴·지원을 통해서 대학생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대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첫째, 총장(학장)이 승인하고 독자적인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창업동아리와 둘째, 창업동아리 회원이 20인 이상이고 지역연합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동아리(신청일 현재)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학 내 창업동아리이거나 연합체형태의 동아리 그리고 창업경연대회 및 관련대회 수상작 배출 창업동아리는 선정시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각 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1개 동아리당 500~700만원 한도내에서 PC, 프린터 등의 시설품 구입비와 운영비 지원을 하고있으며 운영비는 지원총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각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신규동아리 신청·접수를 통하여 심사를 거친 후 지원동아리 선정은 본청에서 하고 있다. 선정된 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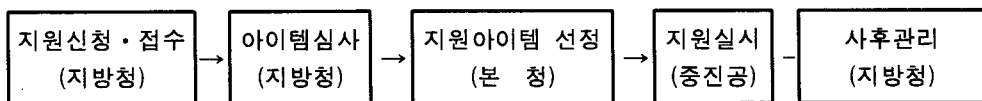
2. 우수창업 아이템개발 지원사업

이 제도는 창업동아리가 개발중인 사업아이템을 공모하여, 사업화를 위한 초기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아이템의 사업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로 운영

2) 전국 대학생 창업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 자료(<http://kosen.or.kr/newkosen/>)

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창업동아리 지역연합회 회원(신청일 현재)으로써 신청일 현재 2개월 이상 활동을 하고 아이템 개발을 목적으로 활동중인 개발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아이템에 따라 차등지원 되며 지원 내용은 아이템에 선정된 동아리에 아이템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아이템개발비와 개발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창업동아리 신규 발굴 지원사업과 동일하다.

<표 1> 아이템개발 지원 프로그램 절차



자료 : <http://www.smba.go.kr>

3. 동·하계 벤처창업스쿨 개설

21세기 국가경제를 선도할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질과 건전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함양토록 교육하기 위해 매년 동·하계 2차례에 걸쳐 창업동아리 벤처창업스쿨을 개최하고 있다.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2박 3일에 걸쳐 실시되고 있으며 2001년도 동계 대학생 벤처창업스쿨에서 개설된 주요 교육내용은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해 대학생 창업성공사례 소개, 벤처기업인과의 대화, 창의성 개발 및 아이디어 창출기법 교육, 리더십, 창업동아리간의 네트워킹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창업관련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으로는 벤처기업 창업전략, 벤처창업 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기술경쟁력 확보전략, 마케팅전략,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 지식경영 등에 대한 세부 교육강좌가 진행되었다. 또한 창업준비 실습기회의 제공을 위해 자체 분임토의를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등도 주요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4.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젊고 패기있는 세대들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업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의창업계획서 작성을 통한 간접경험을 제공하고 대학생들의 참

신한 창업아이디어와 우수신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미래 청년기업가의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참가는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창업동아리 지역연합회의 회원동아리 회원으로 구성된 창업팀(3인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청의 우수창업아이템으로 선정된 아이টে을 계속 발전시켜 사업화의 성공단계에 이르렀거나 이미 창업에 성공한 팀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관련기관(단체)에서 실시한 창업관련대회에서 수상한 팀 그리고 독자적으로 아이টে을 개발·발전시켜 창업에 성공 또는 가능한 팀으로서 각 지방청장이 추천한 팀(전체 추천팀 수의 20% 범위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연분야는 참가대상분야 ① 정보통신·전기전자(S/W·H/W개발, 인터넷, 게임, 콘텐츠사업 포함), ② 기계(자동화, 부품·신소재 포함), ③ 화학(환경, 생명공학, 식품, 섬유 포함), ④ 생활 및 지식서비스(생활용품관련, 문화, 광고·출판, 디자인, 캐릭터 포함) 등의 4개 분야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심사기준은 창업사업의 실현가능성·기술성·사업성, 사업계획의 창의성, 창업자(팀)의 추진능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있다. 참가는 각 지방 중소기업청 신청·접수된 창업아이টে 중 사업화단계까지 이른 창업아이টে을 1차 선정하여 본 대회참가자로 결정하며 각 지방청은 선정된 팀을 본청에 통보하고 본 대회참가시 각 지방청 주관으로 지역별·학교별·동아리별로 부스를 설치하여 아이টে을 전시·홍보하고 본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방청에서 추천된 선정팀의 사업을 창업경연대회 기간동안 최종 심사함으로써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입상팀에 대해서는 상장 및 부상과 소정의 사업 종자돈(Seed Money)이 지원되며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 지원연계(신용지원),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 지원,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사후 창업지원책도 제공되고 있다.

5. 기타제도

앞에서 언급한 창업동아리 지원제도 외에 벤처기업 현장견학을 통해 벤처경영의 실체를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창업현장 견학프로그램” 제도와 우수 창업동아리 대표들에게 선전 벤처기업 등을 견학시켜 벤처기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 “해외 선전벤처 연수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Ⅲ.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실태

본 조사는 대학생창업동아리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1년 9월~12월까지 전국에 소재해 있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각 대학의 창업동아리 중 전국 대학생 창업동아리 연합회에 가입된 동아리 회원들에 대한 우편설문을 의뢰하여 대담에 응해준 123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소재 대학 34개 동아리가 설문에 응하였으며 지방소재 대학 동아리는 89개가 설문에 답하였다. 교급별로는 전문대학 66개 동아리와 4년제 대학 57개의 동아리가 응답을 하였다. 조사항목은 동아리 활동 및 운영현황, 대학생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체감효과, 수요자 건의사항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질문하였다. 대학생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체감효과 대상항목은 앞절에서 살펴본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대학생창업동아리 지원 제도 중 일부에게 혜택이 국한된 “창업현장 견학프로그램” 제도와 “해외 선진벤처 연수프로그램”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제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당초 모든 항목에 대해 지역별, 교급별 차이분석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동아리 활동상태 및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지 않아 일반적인 현상만을 파악하였다.

1. 동아리 활동 및 운영현황

1.1 창업동아리 결성목적

창업동아리 결성목적은 실제 사업화 모색을 위한 목적이 전체 응답동아리의 3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29.3%), 창업정보 교류 목적(26.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창업동아리 결성목적

구 분	창업과정 이해	창업정보 교류	사업화 모색	기타
응답자수(비율)	36(29.3%)	33(26.8%)	42(34.1%)	12(9.8%)

1.2 동아리 활동상태

현재 동아리 활동상태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동아리의 39.8%가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양호하다고 응답한 동아리는 35%에 그치고 있어 대학교 창업동아리 활동이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소재 창업동아리는 79.3%가 양호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지방소재 창업동아리 중 현재 양호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에 불과하고 저조하다는 응답비율이 무려 52.8%에 이르고 있어 서울과 지방소재 창업동아리간의 활동상황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문대와 4년제 대학별동아리 활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 창업동아리는 56.1%가 양호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대 창업동아리들은 53%가 활동이 저조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지역간, 교급간 활동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동아리 활동상태

구 분	매우 양호	양호	보통	저조	아주 저조
응답자수(비율)	13(10.6%)	30(24.4%)	31(25.2%)	33(26.8%)	16(13.0%)

<표 4> 지역별 동아리 활동상태

구분	매우 양호		양호		보통		저조		아주 저조	
	서울	지방	서울	지방	서울	지방	서울	지방	서울	지방
응답자수 (%)	10 (29.4)	3 (3.4)	17 (50.0)	13 (14.6)	5 (14.7)	226 (29.2)	2 (5.9)	31 (34.8)	0 (0.0)	16 (18.0)

<표 5> 교급별 활동상태

구 분	매우 양호		양호		보통		저조		아주 저조	
	4년제	전문대	4년제	전문대	4년제	전문대	4년제	전문대	4년제	전문대
응답자수 (%)	10 (17.5)	3 (4.5)	22 (38.6)	8 (12.1)	11 (19.2)	20 (30.3)	14 (8.8)	19 (42.4)	9 (15.8)	7 (10.6)

1.3 동아리 운영시 가장 큰 애로사항

동아리 운영시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35%가 체계적 창업교육프로그램 미비를 꼽고 있으며 그외 성취목표의 부재(26.8%), 회원의 이탈 가속화(21.1%)를 꼽고 있어 체계적 지원 교육프로그램의 마련과 창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대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미비(43.9%) 및 목표부재(26.8%)로 인한 활동위축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동아리 운영시 애로사항

구분	창업교육 프로그램 미비	목표부재	이탈회원의 증가	정보부족	기타 (자금부족 등)
응답자수(%)	43(35.0%)	33(26.8%)	26(21.1%)	14(11.4%)	7(5.7%)

<표 7> 교급별 애로사항

구분	체계적 창업교육 프로그램 미비		목표부재		이탈회원의 증가		정보부족		기타(자금 등)	
	4년제	전문대	4년제	전문대	4년제	전문대	4년제	전문대	4년제	전문대
응답자수 (%)	14 (24.6)	29 (43.9)	10 (17.5)	23 (34.8)	16 (28.1)	10 (15.2)	10 (17.5)	4 (6.1)	7 (12.3)	0 (0)

1.4 창업경진대회 참여 경험

외부 창업경진대회 참여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1.7%가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한번도 참여하지 못한 동아리들도 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40%가 참가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기초사항에 대한 능력부족을 꼽고 있어 외부전문가에 의한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이템 부족을 꼽는 응답도 28.8%에 달하고 있다.

<표 8> 경진대회 참여경험

구분	있다	참여의향은 있었으나 방법을 잘 몰랐다	참여업무를 내지 못했다	기타
응답자수(비율)	76(61.7%)	23(18.7%)	22(17.9%)	2(1.6%)

<표 9> 경진대회에 참여 못한 이유

구분	사업계획서 작성능력 등의 부족	아이템 부족	정 보 부 족	참가절차의 복잡	기타
응답자수(비율)	18(40.0%)	13(28.8%)	7(15.6%)	4(8.9%)	3(6.7%)

1.5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대상의 창업경진대회 문제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부의 각종 대학생 대상 창업경진대회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48.8%가 대부분의 경진대회가 실제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어 공대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학생의 참여가 근본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꼽고 있어 굳이 사업화가 아니더라도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동기부여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경진대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진대회 입상팀에 대한 사후지원제도 미흡도 28.8%가 응답하고 있어 이들 행사가 1회용에 그치지 말고 입상한 팀들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소기업청 주최 2001년 제5회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수상작 명단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 이공계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경진대회 문제점

구 분	공대생 위주의 아이템만을 대상	입상팀에 대한 사후지원제도 미흡	사업계획서 위주의 평가항목의 단순화	기타
응답자수	60(48.87%)	36(29.3%)	20(16.3%)	7(5.7%)

<표 11> 중소기업청 주최 2001년 제5회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수상작 명단

수상구분	창업사업명	소 속
최우수상	태양전지 액세서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우수상	세이비(savy)	금오공대 생산기계전공
	M.PET	한양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온라인 실시간 보안 컨설팅 및 하드웨어 보안 솔루션	밀양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Arc Sensor를 이용한 격자형 로봇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
	PC 주변기 사업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
장려상	전통 조각디자인을 주제로 한 웹사이트의 구성 및 운영방법	송의여자대학 의상디자인과
	인테리어 사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인바운드 여행업무 무선행사진행시스템	대학연합팀
	PC용 Online Game	인제대학교 정보컴퓨터학부

자료 : <http://www.smba.go.kr>

1.6 창업희망분야

향후 창업희망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상품개발(26.8%), 전자상거래(22%), IP (정보제공사업 12.2%), 컴퓨터프로그램 분야(9.8%), web구축(9.8%)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희망 수요를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기타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 창업희망분야

구 분	제조업 (상품개발)	전자상거래	정보제공(IP)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web구축	기타
응답자수(%)	33(26.8)	27(22.0)	15(12.2)	12(9.8)	12(9.8)	21(17.1)

2. 대학생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체감효과

2.1 주요 대학생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개선 희망사항

중기청에서 시행중인 주요 대학생 창업지원제도(창업동아리 지원금제도, 창업경연대회, 아이템개발비 지원프로그램, 동·하계 벤처창업스쿨)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평균 82.8%가 이들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이들 제도의 활용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창업동아리 지원금 제도에 대한 참여경험(66.7%), 창업경연대회 참여경험(70%), 아이템개발비 지원프로그램 참여(73.2%)등에는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나 동·하계 벤처창업스쿨 참여도는 52.8%에 그치고 있어 타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표 13> 창업지원제도 인지도

구 분	창업동아리 지원금제도	창업경연대회	아이템개발비 지원 프로그램	동·하계 벤처창업스쿨
응답자수(%)	105(85.4)	99(82.5)	93(75.6)	108(87.8)

<표 14> 중소기업청의 주요 대학생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참여경험

구 분	창업동아리 지원금제도	창업경연대회	아이템개발비 지원 프로그램	동·하계 벤처창업스쿨
응답자수(%)	64(52.0)	48(39.0)	72(58.5)	66(53.7)

2.2 중소기업청의 주요 대학생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체감효과

창업지원제도의 체감효과를 묻는 질문에 실제창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25.2%로 나타났으며 이 중 벤처창업스쿨에 대한 체감효과(16.3%)는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으나 지속적 지원체계의 미비로 효과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응답비율이 평균 35.2%에 이르고 있으며 그 외 형식적 제도의 그치고 있어 예산낭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18.9%, 그리고 효과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14%로 나타나 이들 제도들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5>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체감효과

구 분	창업동아리 지원금제도	창업경연 대회	아이템개발비 지원 프로그램	동·하계 벤처창업스쿨	평균 비율
실제창업활동에 많은 도움	32(26.0%)	29(23.5%)	43(35.0%)	20(16.3%)	25.2%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나 지속적 연결 지원프로그램 필요	49(39.8%)	47(38.2%)	45(36.6%)	32(26.0%)	35.2%
형식적 제도에 그치 고 있어 예산낭비다	13(10.6%)	20(16.3%)	15(12.2%)	45(36.6%)	18.9%
잘 모르겠다	24(19.5%)	18(14.6%)	12(9.8%)	15(15.2%)	14.0%
기타	5(4.1%)	9(7.3%)	8(6.5%)	11(6.7%)	6.7%

2.3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책

창업동아리 지원금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묻는 질문에 대상동아리의 확대(28.5%), 지원금액의 확대(27.7%), 선정과정의 투명성확보(23.6%), 지원금액에 대한 사후자율성 보장(16.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창업경연제도의 개선책을 묻는 질문에는 사업아이템 평가만의 확실성 지양(35.8%), 경진대회 횟수 증대(24.4%), 입상팀에 대한 사후지원강화(22.8%)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아이템개발비 지원프로그램의 개선책을 묻는 질문에 개발지원금의 대폭인상(44.7%), 신청분야의 확대(27.6%), 서류작성의 간소화(17.9%) 등의 순으로 대답하고 있으며 벤처창업스쿨의 개선책을 묻는 질문에는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43.9%), 교육기간의 확대(27.6%), 교육생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17.9%) 순으로 대답하고 있다.

<표 16> 창업지원제도 개선책

지원제도	희망 개선 사항	응답(비율)
창업동아리 지원금제도	① 대상 동아리의 확대 ② 지원금액의 확대 ③ 선진과정의 투명성 확보 ④ 지원금액에 대한 사후 자율성 보장 ⑤ 기타	35(28.5%) 34(27.7%) 29(23.6%) 20(16.3%) 5(4.1%)
창업경연대회	① 방법의 획일성 탈피 ② 경진대회 횟수 증대 ③ 입상팀에 대한 사후지원 강화 ④ 기타	44(35.8%) 30(24.4%) 28(22.8%) 21(17.1%)
창업동아리 아이템개발비 지원 프로그램	① 개발지원금의 대폭인상 ② 신청분야의 확대 ③ 신청서류 작성의 간소화 ④ 기타	55(44.7%) 34(27.6%) 22(17.9%) 12(9.9%)
동·하계 벤처창업스쿨	① 실제적 도움이 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 마련 ② 교육기간의 확대 ③ 교육참가자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④ 기타	55(43.9%) 34(27.6%) 22(17.9%) 12(9.8%)

3. 대학생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수요자 건의사항

대학생 창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유관기관에 바라는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를 묻는 질문에 벤처기업과의 연계프로그램 주선(53.7%), 교육프로그램 마련(23.6%), 경진대회 회수의 증대와 다양화(14.6%)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학생들이 실제 현장참여에 많은 의욕과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정부 및 유관기관에 바라는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

구분	벤처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주선	교육지원프로 그램 마련	경진대회 회수의 증대와 다양화	자금지원 강화	기타
응답자수(비율)	66(53.7%)	29(23.6%)	18(14.6%)	8(6.5%)	2(1.6%)

IV. 대학생 창업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 및 지원제도의 문제점

앞의 설문조사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이 많은 부분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풍조에서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실제 대학생들에게 창업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과 사회적 기반은 전혀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창업열기 확산만을 위한 단발성, 전시형 노력만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제도 또한 체감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학생 창업 지원제도가 정확한 현황 분석없이 일반 창업지원제도의 종속적 제도로 급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의 설문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1.1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의 전반적 위축 현상이 심화

앞에서 보았듯이 체계적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창업활동을 지도할 전문가의 부족 또한 창업동아리 활동의 발전가능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 경진대회가 실제 사업가능한 아이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참가동아리가 한정 될 수밖에 없고 이공계를 제외한 타계열 동아리 및 학생들의 창업활동은 목표의식과 동기의식이 결여된채 이탈 회원 수의 가속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런 목표의식의 부재, 동기부여의 부족, 창업활동의 방향실종 등은 창업허무주의를 양산시켜 그동안 확산되었던 대학생 창업열기 및 마인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1.2 관(官)주도의 하향식 창업지원제도

현재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는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획일적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1회용 연례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피드백 과정이 생략되는 등 평가시스

템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실제 제도 취지와 수요자의 체감간에는 많은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지침이 매년 되풀이 되는 지원제도의 경직성은 창업활동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획일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나친 실적물 위주의 평가로 창업활동 과정의 중요성이 무시되면서 창업활동 과정의 내재적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부여받은 동아리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독과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연계지원 프로그램의 제공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나 단발성 혜택에 그치고 있어 실제 창업활동과는 상관없이 지원금만을 노린 동아리를 탄생시킬 위험이 있다.

1.3 창업활동의 의미에 대한 왜곡현상

창업활동이 굳이 실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보다도 창업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원리를 터득하고 상호 정보교류 및 학습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여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실습 학습의 연장이 되어야 하나 작금의 분위기나 지원체계가 결과물 위주의 평가시스템으로 되어있어 미래의 청년사업가들에게 필요한 기초자질 연마 및 기업체계의 순환과정에 대한 이해도모 등의 가장 기본적 기능과정이 무시되고 있다.

1.4 창업활동에 대한 위기에 노출

또한 대부분의 신문이나 매체 등에서 성공한 벤처기업인들의 소개나 벤처창업 성공사례 발표, 셀러리맨들의 창업사례 등의 발표를 통해서 창업열기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 실패한 더 많은 수십 배의 실패사례들은 전혀 노출되지 않아 대학생들에게 창업은 누구나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기대감을 형성하는 역기능이 초래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공사례들만의 지나친 노출은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안일한 접근을 부를 수도 있다.

1.5 민간단체의 역할이 전무

다른 창업관련 부분에 비해 대학생 창업지원 활동은 상대적 무관심과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나 주의 환기를 담당할 여론주도층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나 수요자중심의 정책수립 및 시행을 감시하고 권익을 대변해 줄 민간단체의 역할 부재도 대학

생 창업동아리 활동 활성화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학생 창업활동 증진을 위한 개선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 창업활동과 관련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창업활동 증진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 동아리 운영체계의 재정비

동아리의 전반적 활동과정을 지도·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정하여 체계적 창업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벤처기업과의 연계강화로 프로젝트 공동수행이나 방학 중 현장체험 학습이 가능한 기반 조성작업이 필요하다. 즉 1동아리-1전문가, 1동아리-1벤처기업 연계프로그램 운영으로 효율과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 지원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동아리별 중점활동 분야 및 지역별, 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 필요한 지원책이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지원되어야 한다.

2.2 활동분야별 벤처창업동아리 연합회 구성

현재 중소기업청 주도로 지역별 대학생 창업동아리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역상의 구분은 무의미하므로 공통관심 분야별로 동아리간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할 경우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나 각종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고 상호 관심분야별 정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의 수행가능성 증대로 시너지(synergy)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통관심 분야별 연합회가 구성될 경우 동일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와의 연계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며 방학기간 중 현장실습 및 아르바이트 기회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체로서도 신입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채용시 해당분야의 체계적 지식과 관심을 가진 양질의 인력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다.

2.3 가시적 목표의식 및 동기부여 제공

창업동아리 회원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활동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경진대회 평가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서 위주의 결과물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과제수행 절차의 효율성 및 회원들의 참여도, 역할분담, 지도교수 및 전문조언가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실제 창업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도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한 기업의 기본원리 및 절차를 연습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학습적 효과나 예비창업인 육성에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줄 것이다. 그리고 경진부분 또한 실제 창업아이템 사업계획서 부분과 특정과제 수행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기존 이공계 위주의 경진대회에서 탈피하여 모든 동아리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활동과정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2.4 창업학위제도 운영

현재 단발성 1회 행사로 끝나고 있는 기존의 각종 창업강좌를 탈피하여 방학 중 학기별로 창업교육에 필요한 단계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 후 일정학기 이상, 일정의 창업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창업학위를 수여하는 등의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매학기 방학기간 동안 벤처창업교실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정규학점 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과정을 마치거나 외부경진대회 등에 소정의 성과를 올렸을 경우 이들이 정책자금 신청이나 취업을 희망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등의 혜택도 마련되어야 실효성이 증진될 것이다.

2.5 대학생 창업지원활동의 지원체계의 재정비

현재 중기청을 위주로 각종 대학생 창업지원 활동이 수행되고 있고 또 나름 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다양성과 전문성, 연계프로그램 측면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효율성 증진을 위해 운영은 민간기관이나 외부전문가들에 일정부분 위탁하고 제도적 측면의 기반지원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혹은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창업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나 행사가 통합·운영되어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주제별, 분야별, 시기별, 지역별로 연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수행할 수 있으므로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고 동아리들도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창업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2.6 사후지원체계 강화

기존 경진대회나 각종 공모에서 수상했을 경우 일정액의 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1회성 지원으로 그치고 있어 수상팀의 경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연결시켜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상품화가 가능한 사업일 경우 법률적, 제도적, 전문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그들이 창업활동을 통해 평가된 정당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 연계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V. 결 론

지금까지 대학생창업활동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대학생 창업활동은 벤처창업열풍을 타고 대단히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듯이 보였으나 실제 조사결과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은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및 전문지도자의 부족, 뚜렷한 동기목표의 실종 등으로 갈수록 회원이 감소하고 활동 자체가 정체되는 등의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대학생 창업지원제도 또한 원래의 취지만큼 그 혜택이 골고루 실효성 있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체감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대학생은 변화의 주체로써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미래의 번영이 대학생과 같은 예비기업가들의 창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확신아래 대대적인 기업가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캐나다 등 다른 외국 대학들도 대학내에 벤처기업 코스를 신설하고 기업가적 성격을 지닌 학생들을 발굴하여 예비사업가를 양성하여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시대적 흐름과 선진국들의 대응에 발맞추어 대학생들이 창업활동을 통해서 자유기업의 원리에 대한 기본마인드를 형성하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본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존 동아리 운영 및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그들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느 한 집단이나 개인만이 아닌 정부, 유관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등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대학생 창업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물적, 인적 지원체계

를 마련해 줄 수 있을 때 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멀지 않은 장래에 지식경영 시대에 걸맞는 건전한 가치관과 진취적 모험정신이 우리 나라를 지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박철순(1999),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 정보화사회,” 133호, pp. 45~65.
2. 박희재(1998), “대학 및 연구소의 벤처창업을 기대한다,” 기술관리 182, pp. 23~24.
3. 배금희(1998),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창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36.
4. 오범균(1999), “벤처 기업육성을 위한 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연구,”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pp. 14~15.
5. 유호상(1999), 성공적인 벤처창업을 위하여, 정보화사회 128, p. 21.
6. 윤중엽(2001), “대학생창업활동 활성화 방안,” 대한상공회의소 대학생 창업 활성화 심포지움 자료집, pp. 14~32.
7. 조홍민(1999), “벤처창업, 정통부서 지원한다 : 벤처 창업경진대회 개최, 아이템 접수서 사후관리까지 지속적 지원,” 뉴스메이커 336호, pp. 23~24.
8. Jahra, Shaker A(1999), “Technology Strategy and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 pp. 12~14.
9. Timmous, J. A(1994).,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rwin.
10. <http://kosen.or.kr/newkosen/>
11. <http://www.smba.go.kr>

Abstract

A Study on Supporting System Problems of Creation Enterprise of Students

Yoon, Jung-eob · Heo, Kap-soo

It is concentrated their efforts on expanding establishment mind like creating regular subject about establishment business of students and establishment business supporting center in University.

Students creation enterprise club for establishment business with this hot wind of change and it seems to be success with hot wind of venture creation and gather many students for it.

But practical result of research says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like absence of education program, insufficient of professional leader, missing exact purpose so members decreased and activity itself piled up. Also creation business supporting system for student didn't conveyed to students evenly and effectively as much as original purpose and feeling effect is short of expectation.

Therefore it will be required to reorganize supporting system and operate existed club to raise their ability of basic quality and gift that needs to do company activity and create basic mind about principal of free enterprise through activity of establishment enterprise by students.

And we have to interest in their activity for creation enterprise with exact consciousness of purpose and prepare systematic, material, human supporting system that needs to establish enterprise with our knowledge and ability.